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38

“우리도 함께 뛰다”

보해양조

경제위기 넘는 에너지원 ‘일새주’가 새 봄을 연다

“전 직원의 100% 완주를 통해 지역 대표 주류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며 시·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이병우(57) 홍보이사를 비롯한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 임직원들의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전 출사표다.

틈틈이 다진 체력 100% 완주

보해 직원들은 사내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 않지만 운동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조직보다 높다. 다른 직업에 비해 술자리가 잦다 보니 직원 모두가 운동을 통해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인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당구에 이르기 까지 어느 회사 어느동호인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보해에서는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광주지점, 홍보실, 기획조정실, 장성공장, 영업관리팀, 고객상담실, 보해식품 등 각 부서의 다양한 멤버들로 구성된 마라톤 40여명이 참석해 건강을 다지고, 새해 각오를 다진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삼기 위해 모두가 자의로 참가신청서를 작성했다.

윤영식(57) 제1영업본부장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계기로 광주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함께 호흡을 맞춰 달리기를 한 기분과 분위기를 몰아 경제 위

기를 이기는 에너지로 삼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윤 부장은 또 “마라톤을 통해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도 높이고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 사랑에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품질로 ‘고객 사랑’에 보답

쳐너 출전인 김영옥 광주지점장은 회사에 탁구 테이블이 있어 시간 날 때마다 직원들끼리 점심 내거나 저녁에 가벼운 술 내기등을 즐기며 체력을 다져왔기 때문에 5km 달리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이 대단하다.

만능스포츠 맨인 나정호(43) 홍보실 차장은 스포츠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전 직원이 시·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100% 완주 목표로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보해양조 직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티팅을 하고 있다.

로 축구와 야구를 즐기는 운동 마니아다. 달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지나 2006년부터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와 인연을 맺으면서 모든 운동의 기본인 달리기애 맛을 들었다.

올 해 4년째 참가하는 나 차장은 대회를 앞두고 술자리를 즐기며 집 근처 운동장에서 호흡 조절 및 체력 관리를 하며 상위 입

상을 해 진정한 스포츠맨의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나정호씨 “이번엔 상위 입상”

이번대회 최대 유망주로 꼽히는 손영민(35)기획조정실 대리는 사내 순위 3위를 목표로 페이스 조절에 몰입했다. 손 대리는

마라톤의 묘미에 대해 “완주했을 때의 쾌감이다”며 “아들이 좀더 성장하면 꼭 마라톤에 입문시켜 자신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고 말했다.

다이어트와 몸매관리를 위해 마라톤을 즐겨온 영업관리팀 박미애(여·28)씨는 마라톤을 하면서 3kg을 빼 마라톤 전도사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골밑에서의 속임수? 21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2009 여자프로농구 금호생명팀과 신세계의 경기에서 금호생명 신정자가 골밑에서 상대 수비를 제지하며 슛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새 용병 ‘V10’ 이끈다

한국야구 선발 투수진 WBC 2위

투수 로페즈·구틀슨 영입 메이저리그·일 무대 경험 올 시즌 4강 승수쌓기 앞장

Table with 3 columns: Name, Position, and Stats. Rows include 로페즈 (로페즈, 도미니카, 190cm, 84kg, 우투우타) and 구틀슨 (구틀슨, 미국, 188cm, 91kg, 우투우타).

KIA 타이거즈의 2009시즌 행보에 힘을 실어줄 용병 마운드가 구축됐다.

KIA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출신의 투수 릭 구틀슨(33·우투우타)과 계약금 7만 달러, 연봉 23만달러 등 총 3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

188cm, 91kg의 체격으로 마이너리그와 일본 야구리그와 소프트뱅크에서 활약한 구틀슨은 슬라이더를 주무기로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

직구구속은 140km중반. 일본 무대에서 노히트노런을 비롯해 27승을 챙긴 구틀슨은 2008년에는 장외출루를 때려내기도 하면서 ‘출루치는 투수’로도 유명하다.

앞선 14일 도미니카 출신의 아킬리노 로페즈(34·우투우타)를 계약금 5만달러, 연봉 25만달러 등 총 30만달러에 영입했던 KIA는 이로써 용병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으로 4월 개막을 준비하게 됐다.

용병 영입 때마다 프로야구팬들의 눈길을 끌었던 KIA는 올해도 메이저리그 출신 로페즈와 일본 무대를 경험한 구틀슨을 새 식구로 맞이하면서 스토브리그를 주도하고 있다.

그동안 KIA는 마크 키퍼, 게리 레스, 다니엘 리오스, 세스 그레이싱어 등 용병을 ‘신데렐라’로 변신시키며 용병 사관학교의 역할을 했었다. 지난해에는 서재응에 이어 메이저리그 89승에 빛나는 ‘쇼맨십의 황제’ 호세 리마와 수비로 이름난 윌슨 발데스까지 영입하면서 프로야구 팬들을 열광 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역대 용병 최고의 성적과 명성을 자랑했던 리마는 3승6패를 남기고 시즌 중반 한국을 떠났고, ‘수비형 용병’이라는 새 물에도 전했던 발데스는 0.218의 타율과 6개의 실책 속에 퇴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디아즈와 데이비스로 급히 두 사람의 빈 자리를 채웠지만 4강은 실패했다. 3명의 용병투

수가 합작한 승수는 5승에 그쳤다. 2007년 서튼과 에서튼, 2006년 서브넷, 스킵까지 부상과 부진 속에 시즌 중반 돌려 보내야 했던 KIA는 3년째 용병 농사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용병이 투·타의 기축제가 되지 못하면서 팀 성적도 신통치 못했다.

용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KIA는 고심 끝에 두 명의 용병 투수로 새로운 진영을 갖추었다. ‘재앙’같은 타격으로 2008시즌 48개의 팀출루로 체면을 구겼던 만큼 거포 용병 영입을 우선으로 고려했지만 마땅한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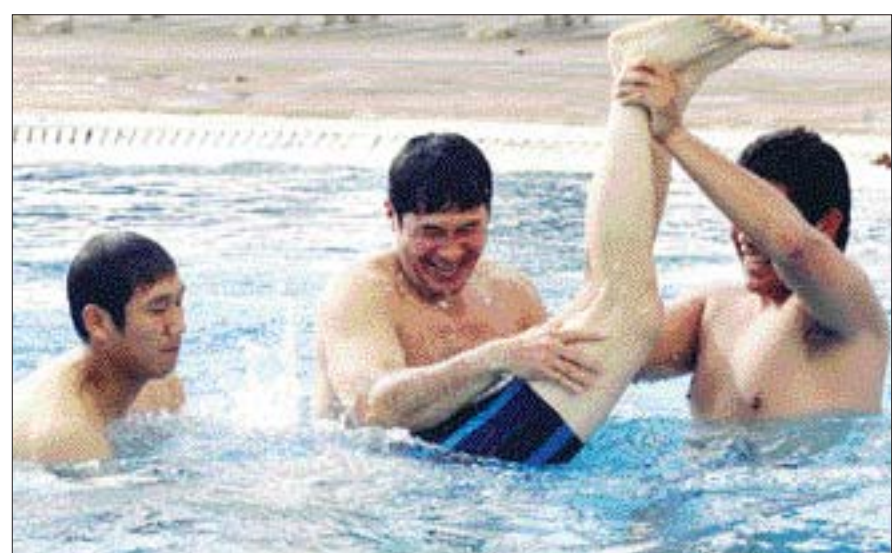
릭 모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192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직구와 타자의 허를 찌르는 변화구로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됐던

데이비스는 높은 몸값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인연을 맺지 못했다. 셋별로 떠오른 이범석이 어깨 부상으로 올 시즌 초반 활약이 불투명한 만큼 로페즈와 구틀슨의 어깨에 KIA의 4월이 달려있다.

지난해 KIA는 시즌 개막과 함께 3연패를 떠안고 시즌을 출발하면서 8승19패의 잔인한 4월을 보냈다. 초반 동력을 잃으면서 한겨울 4강 싸움을 전개했던 만큼 올 시즌은 확실한 기선 제압이 절실하다.

구틀슨은 메디컬체크를 받은 뒤 23일 곧바로 출국해 팀에 합류한다. 새로운 용병 신화를 기다리고 있는 프로야구 팬들의 눈길이 앞으로 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물놀이도 훈련 처럼

꿈 파세오 구장에서 전지훈련 중인 KIA타이거즈의 조태수, 서재응, 이범석, 임준혁이 20일 휴식일을 맞아 숙소 윈워드호텔의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며 모처럼의 휴일을 즐기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3월 제2회 월드베이브클래식(WBC)에 참가하는 야구대표팀의 선발투수진이 참가 1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 스포츠전문 케이블채널 ESPN은 21일 인터넷판에서 전날 발표한 각국 45인 로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WBC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실었다.

이중 대표팀은 선발투수진 항목에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위는 아마추어 최강 쿠바다.

ESPN은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까지 합쳐 6개국 선발 투수진이 모두 같은 표를 득표했다. 그래서 내달 25일 최종 엔트리(28명)가 정해질 때까지 정확한 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과 한국 투수들은 3월 초만 이미 전력투구할 수 있는 컨디션 유지를 할 수 있기에 1,2위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일본프로야구는 2월1일부터 스프링캠프를 열고 한국은 1월 중순부터 팀 훈련을 시작하기에 투수들이 충분히 몸을 만든 상태에서 대회에 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

하이트맥주와 3년 재계약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23·사진)이 21일 하이트맥주와 3년간 재계약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과 류지연 및 국내의 대회 상위 입상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해 국내 최고 수준 대우로 알려졌다.

서희경은 작년 시즌 3주 연속 우승을 포함해 6승을 올리며 삼금랭킹 2위를 차지했고 기자들과 팬들이 선정한 인기상을 받았다. 서희경은 2월 초 호주에서 열리는 유럽 여자골프투어(LET) ANZ 레이디스 마스터즈에 이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전 SBS 오픈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